



영화 '만약에 우리'가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헤어진 연인 은호와 정원이 현재 시점에서 재회한 장면.

## 한때 사랑이었고, 이젠 추억이 되어버린

### [영화 리뷰] 만약에 우리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구교환·문가영 주연 멜로 로맨스

11일째 박스오피스 1위…누적 170만

"만약 우리가 이사하지 않았다면, 만약 네가 나를 조금만 더 기다려줬다면,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우리가 결혼을 선택했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계속 함께할 수 있었을까?"

삶에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순에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아무 의심 없이 미래를 믿을 수 있던 젊음의 시간, 초라하고 비루한 날들 속에서도 소소한 기쁨을 겪며 올리던 청춘의 감각, 그리고 그 결에서 내 하루의 색을 가장 선명하게 물들여주던 첫 사랑.

김도영 감독의 '만약에 우리'는 한때 사랑이었고,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시간을 되짚는

영화다.

2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만약에 우리'는 11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며 누적 관객 170만 명을 넘어섰다. 뚜렷한 경쟁작이 없는 상황도 한 요인으로 있지만 최근 드문 한국 로맨스 영화의 흥행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극장가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관객을 다시 불러들이는 해법은 'F1 더 무비'와 같은 대형 블록버스 더나 '아바타', '주토피아2', '귀멸의 칼날'처럼 N차 관람층을 확보한 작품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왔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흥행은 이 공식이 유일한 답은 아님을 보여준다. 화려한 스케일이 없

어도 섬세한 연출과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가 갖춰 진 작품이라면 관객은 여전히 극장을 찾는다.

영화는 과거의 사랑을 마음속에 묻고 살아가던 은호(구교환 분)와 정원(문가영 분)이 우연한 재회로 잊고 있던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 대만 류웨이 감독의 영화 '면 훗날 우리' (2018)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류 감독이 쓴 단편소설 '춘절, 귀가'를 원작으로 삼았다.

시작은 2024년 여름, 호치민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이다. 태풍으로 밭이 묵인 은호와 정원은 호텔로 향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객실에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된다. 뜻밖의 하룻밤은 오래 묵어 두었던 기억들을 차례로 불러낸다.

16년 전 대학생 시절 고속버스 안에서의 만남으로 인연을 시작한 두 사람은 서울에서 각자의 꿈을 키워간다.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은호와 건축 기를 꿈꾸는 정원은 서로를 의지하며 연인이 된다. 함께 웃고 다투고 화해하며 사랑을 키워가지만, 현실 앞에서 선택은 점점 엇갈리고 결국 이별을 맞는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더 이상 초라하고 불안한 청춘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각자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가진 변듯한 어른이 됐다. 그러나 우연한 재회는 이들을 다시 그 때 그 시절로 되돌려놓는다. "만약 우리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라면, 지금 다른 모습이었을까."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연출 방식이다. 흔히 회상 장면을 흑백으로 처리하는 관습과 달리 '만약에 우리'는 함께였던 시간은 따뜻한 색채로, 이별 이후의 현재는 무채색 화면으로 배치한다. 원작 '면 훗날 우리'가 사용한 시각적 설정을 이어받은 것이다.

여기에 김도영 감독이 '82년생 김지영' 등 전작에서 보여준 스타일 역시 이번 작품에서도 이어진다.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

을 따라가며 이별을 경험한 관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장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열렬히 사랑하던 때 은호는 정원에게 소박하지만 분명하게 마음을 표현한다. 반지하 방에 살던 정원을 위해 커튼을 열어 햇살을 선물하고, 선풍기는 늘 정원 쪽으로 돌려뒀다. 높은 언덕 위까지 빨간 소파를 옮겨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들의 눈빛은 서서히 빛을 잃는다. 은호는 꿈과 다른 직장에 몸을 담고, 정원은 학업을 미룬 채 아르바이트를 한다. 햇살을 들이던 커튼은 닫히고, 선풍기의 방향은 바뀌며, 빨간 소파는 버려진다. 생활의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은 어찌면 피할 수 없는 감정일지 모른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되묻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두 사람이 하지 못했던 말을 모두 털어놓은 후 이별을 받아들이며 막을 내린다. 재회를 바랐던 관객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흑백의 시간 속에 머물던 두 사람의 마지막이 다시 색을 되찾는 것을 보면 이 결말은 비극이 아닌 또 하나의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난 '서구 마을 합창 페스티벌'의 한 장면.

## 일상을 지탱하는 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서구 마을 합창 페스티벌' 24일 서빛마루문예회관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모여 하나의 화음이 된다.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온 주민들이 노래로 마음을 나누는 합창 축제가 열린다.

광주 서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서빛마루 문예회관에서 '서구 마을 합창 페스티벌'을 연다.

서구 18개 동에서 활동 중인 마을합창단 500여 명의 단원이 참여해 이웃과 함께 만들어온 노래를 무대에 올린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다. 음악을 매개로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뜻을 담았다.

공연은 '노래하니 행복하다', '함께하니 행복하다', '나눠주니 행복하다', '하나되어 행복하다' 등 네 개의 파트로 구성돼, 마을별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낸다. 농성2동과 화정1동, 서창동, 금호1동 등 각 동 합창단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무대에 서는 이들은 주부와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모인 주민들이다. 그동안 쌓아온 연습과 호흡이 하모니로 이어지며 생활문화 공동체로서의 연대와 교류의 의미를 전한다.

한 합창단원은 "우울증으로 바깥 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합창단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고 삶에 활력을 찾게 됐다"며 "노래가 일상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23년부터 18개 동에서 마을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동별 행사와 외부 초청 공연에 참여하며 재능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음악을 통해 주민 간 교류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왼쪽부터 박은정 작 '칠복이', 홍희란 작 '입신양명-잉어', 김수정 작 '황금빛 모란 서랍장'

## 자수·매듭·공예… '손끝으로 피우는 나만의 길'

김수정·박은정 등 7명 작가 참여  
28일까지 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

인간의 손만큼 정교하고 다재다능한 '도구'는 없다. AI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사람의 손이 발휘하는 기능과 감성은 무엇에 비할 바 아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손끝에서 피어난 다채로운 작품들을 마주할 수 있다. 그 손들의 주인공들이 미리와 가슴으로 구현한 결과물들은 저마다의 삶의 서사와 이미지, 아우라를 발한다.

무등갤러리에서 오는 28일까지 펼쳐지는 '손끝으로 피우는 나만의 길' 전.

김수정, 김현선, 박은정, 서한순, 이남희, 조수경, 홍희란 등 모두 7명 작가들은 전통을 모티브로 자유로우면서도 실용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자수, 매듭, 구방공예, 한지공예, 금속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70여 점은 작가들 고유의 경험과 시간을 응축하고 있다.

자수나 매듭 관련 작품은 섬세하면서도 여성적 인 매력을 발휘하지만 한편으로 인내와 명상의 느낌도 묻어난다.

한지를 재료로 한 전통 서랍장은 옛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분위기를 흥기하며 김현선 작가의 금속공예는 금속 특유의 차기운보다는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한편 전시실에서 만난 박은정 작가는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들에게 작업은 그 자체가 자기 수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각각 다른 재료와 고유한 경험 등이 맞물려 피워낸 결실"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서 확대…문화체부 입법예고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문화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

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이 2024년 84.7%까지 치솟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문화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 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